

사 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여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지방공무원들의 태도는 관선시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 공무원들은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으나, 불행하게도 최근 우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일 토성면 용암2리 마을회관에서 50여명의 주민이 빼곡하게 들어앉은 가운데 열린 '청간리 풍력발전 사업' 주민설명회는 지방공무원들이 국가의 주인이자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청간리 풍력발전 사업은 사업 허가권자인 도지사가 '주민동의를 얻는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 사안이다. 그런데 업체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아무리 도지사가 사업허가를 내줬다고 하여도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착공할 수 없는데도, 허가를 내줬다는 점이다.

강원도에서는 '주민동의를 받을 것으로 믿고 사업허가를 내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고성군이 똑같은 말을 해서

주민 무시하려면 지방자치 뭐하러 하나

안된다. 주민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강원도처럼 주민동의를 받을 것으로 믿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고 구멍이 담뱃머기듯이 한다면, 이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우롱하는 것이 된다.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업체 대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 다음에 전화하라'며 답변을 회피했다고 한다. 사태가 심각한데도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기자의 간단한 질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정도의 형식적인 대답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힘없고 뺨없는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대할 것인지 쉽게 짐작이 간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천진2리 주민들이 마을 뒷산에 있는 소나무 3그루가 죽어가고 있다며, 원인 규명과 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안도

지방공무원들이 주민들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소나무가 처음 이상한 증상을 보였을 때 곧바로 군청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한두번이 아니라고 했다. 이동환 이장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보호과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한번도 나와보지 않다가 나무가 다 죽은 뒤에야 현장을 찾았다"고 했다.

이들 두가지 사안에서 나타나는 지방공무원들의 태도는 현재 고성군의 자치역량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관선시대에 도지사가 무서워서라도 민원을 빨리 해결했다고 한다면, 지방자치 시대에는 주민이 무서워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고성군 지방공무원들은 도지사도 주민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군수에게만 잘보이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家長(가장) 老壯(老年=暮年모년=老蒼노장: 늙은 나이인 노인의 경정. 장년=활기찬 삼십 안팎 나이)은 가정은 지혜의 龜鑑(귀감: 본보기)이요, 경험과 체험의 사표 선지 선각자로서 우수민족의 자긍심의 기운을 불어넣은 초석이 되고 좋은 길잡이다.

아동(학령기 6세 이상 18세 이하로 칭함)의 인성교육의 중심체이고, 인격형성의 모체는 가정의 화목이 확실하다 하겠다(순자, 토마스 홉스 등의 설에 의함)

영아(孕胎임태=胎胎포태 0~1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 임신하여 여인과 胎敎(태교: 태아의 태 교육)의 보호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에 대한 건강한 출산까지 국가사회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재원확보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라도 완전 보험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출산비와 양육비(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36월 미만까지 지급됨)를 지급하고 있으나,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장려금 확충과 보육기간의 연장 건강한 성장비 추가(연령별)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 불인다면 인구밀집 지구에 대상 인구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교육시설 확대 기존시설 개선, 보육교사 유아교육 교사 국내외 연수(자비일부부담) 보수교육 등 보수는 초등학교원 동등 대우하고 기타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교육(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 골든벨 장학퀴즈 교육 분위기 조장 바람직 그리고 어린이 조기교육등의 중대성과 세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우주로, 대양으로 나가자

계인의 주인임을 감안하여 제일의 로 삼아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60년대 산하제한으로 감소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과제와 세계인으로서 활동과제가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 서있는 까닭을 잘 알고 있다. 교육투자는 百年大計(백년대계: 먼 훗날까지 큰 계획) 現想(현상)이자 결실이라는 것을..., 빈곤에서 벗어난 것도 교육의 힘이었다는 것. 우리 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가며 오늘을 이루어 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오늘의 아동(주인공)들이여 영원한 발전 영원한 번영 영원한 행복 길이 바로 선지 선각자들이 걷는 길이요 이 길을 잃어도 잊어서는 아니 되고 나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체험경험 하여 알았으니, 오늘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힘을 결집하여 재도약하는 일이 최우선 하여 세계로 우주로 대양으로 邁進(매진)하여야겠다는 것.

이제 평화의 使徒(사도)되어 세계인의 지도자로서 우수민족의 자긍심 가지고 勤儉

勞作(근검노작: 매사에 노력하고 검소하며 행복을 일궈야...)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 어제 오늘이 변화는 이 시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 되어야 한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나의 가정을, 우리나라사회를 인류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여야한다.

아동(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의 興亡(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동이 보다 건강하고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성인들의 몫이다.

성인(노년 장년 청년)들은 국가사회의 거울이요 지도자로서 모범이요 수련인의 師表(기예를 닦는 표본)이며 우수민족의 翹楚(이재 세계인의 지도자임이 현실이다).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노력을,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한 어려운 세월의 터널을 지나 빈곤이 우리 곁을 떠났는가를 回顧(회고)하지 않을 수 없다. 내일 위해 유실수를 심었고 오늘 거둬 저장하는 마음은 우리

생전엔 변하지 못하리라. 나라의 눈은 노장이 구려나가고, 세계로 진출하는 것은 그대들의 것. 즉 내외로 활동은 아동의 몫이라는 것. 우리 이제 흥익정신을 발휘합시다.

오늘도 건강을 위하여 '대산'에 대한 앎을 나누시다.

大蒜(대산= 큼 마늘, 胡蒜(호산=달래 작은 마늘. 훈채=매운맛을 냄) 하늘이 하사한 귀한식품인 줄 알고 먹는 것이다 중요하다 하겠다. 42種중 2가지를 病勢(병세)치유능력을 알아보기로 하는 지혜를 나눠, 365일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마늘은 風邪毒氣(풍사독기: 매서운 바람 같이 아픈기운)를 除去(제거)하고 腫氣(종기)나 疔症(부증: 부음, 부스럼)을 없애준다. 또한 濕氣(습기; 축축한 기운)을 빼고 鎭痛止血作用(진통지혈작용; 피 흘림을 막고 아픔을 다스린 기능)脾胃(비위)와 陽氣(양기; 밝은 기운을 줌)를 봄가을엔 적게 먹고, 여름겨울엔 많이 먹은 것이다. 익혀 먹으면 보온이 되고 날로 먹으면 시력이 나빠진다.

끓인 식초에 1년간 담근 후 먹으면 除毒(제독; 독을 없앴)작용과 비위보강에 영약이 될 것이다. 1)증세가 이질과 설사엔 효능이 있다. 만든 방법은 껍질을 벗긴 마늘 두 쪽을 찌서 2등분 한 후 헹궈서 찌서 끓이면 증세는 사라진다. 유의사항은 양발 바닥 가운데에 천으로 감고 마늘즙이 스며들어 상처를 방지한다. 2)치아통증세엔 풍치 충치를 다스린다. 사용방법엔 마늘 한쪽을 불에 뜨겁게 데워 아픈 이로 물고 있으면 효능을 본다.

◇편집국에서

0...6월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의로운 행동을 되돌아보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지역에서도 군경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추모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해방된 직후 공산 치하

에 있다가 6.25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우리 지역은 특히 호국 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남다르다고 하겠다.

6월 한달만이라도 국가를 위해 전사한 호국 영령들과 살아있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았으면 한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